



정혜림

광주시청 정혜림·한정미 '금빛 레이스'

광주시청 육상팀이 명불허전의 전력을 과시했다.

광주시청 육상팀(감독 심재용)은 "지난 9일부터 경북 예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9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금메달 주인공은 100m허들 정혜림과 400m 한정미다.

정혜림은 여자일반부 100m허들에서 13초44로 류나희(안산시청·14초01), 조은주(포항시청·14초05)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랭킹 포인트로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정혜림은 개인 최고 기록(13초04)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올 시즌 첫 경기(6월 26일 13초65)보다는 나은 기록을 냈다. 정혜림은 올 시즌 첫 경기였던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이어 금빛 레이스를 이어 갔다.

한정미는 10일 여자일반부 400m에서 56초42로

각각 100m허들·400m 우승

육상선수권 금 2·은 2·동 2

조선대 모일환은 대회 2관왕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김민지(진천군청·56초98), 3위는 이지영(김포시청·57초30)이 차지했다.

한정미는 예선에서 58초67으로 산뜻하게 출발해 결승에서 최강자임을 확인했다. 한정미는 올 시즌 첫 대회인 제7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불참했지만, 여전한 기량을 확인했다.

남자일반부 400m계주에서는 여호수아·김민균·송만석·강의빈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이 41초77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40초38의 국군체육부대(박태건 민희현 김국영 주은재)다.

또 이준이 남자일반부 400m에서 47초81로 2위

에 올랐다.

동메달은 400m허들 장지용과 200m 유지연이 각각 차지했다.

장지용은 400m허들 남자일반부에서 53초20으로 3위에 올랐다. 1위는 정선균형 임찬호(50초80), 2위는 (주)부산은행 이승운(52초61)이 각각 차지했다.

유지연은 200m 여자일반부에서 24초52를 기록, 시흥시청 이민정(24초11), 안동시청 김다정(24초39)에 이어 세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을 기록했다.

남자 대학부에 출전한 모일환(조선대)은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모일환은 남자 대학부 400m 결선에서 46초72를 기록하며 장준(성균관대·47초79)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남자 대학부 200m 결선에서도 20초97로 우승,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정미



국제 철인3종 경기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가 지난해 태풍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2년연속 취소됐다. 사진은 2018년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구레군 제공>

코로나19에...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올해도 취소

지난해 태풍 이어 2년 연속 개최 못해

구레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9월6일 예정됐던 2020 국제 철인3종경기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대회를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대회는 해외 40여개국 1500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풀코스 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대회다.

3개 종목 총 226km(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로 구성된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대회는 국내 철인3종 동호인이 가장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알려졌다.

대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수와 군민의 안전, 해외선수의 입국 여건, 방역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대회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태풍으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2년 연속 취소돼 오랜기간 준비한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이후 국내·외 모든 철인3종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코로나19 확산이 광주·전남 등 지역까지 지속되고 있어 개최를 앞둔 일부 대회도 불투명하게 됐다.

/구레=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통 큰 임블던'...대회 취소에도 상금 152억원 지급

보험 들어둔 덕에 620명에 지급

단식 복선 직행 선수 3800만원

권순우·정현·한나래 등 혜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 때문에 취소된 올해 임블던 테니스 대회가 총액 152억원에 달하는 상금을 출전이 가능했던 선수들에게 지급한다.

대회를 개최하는 올잉글랜드클럽은 11일(한국 시간) "올해 대회가 취소됐지만 이에 대비한 보험에 들어둔 덕에 선수들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 랭킹 기준으로 620명의 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올잉글랜드클럽은 총액 1006만 6000파운드(약 152억원)에 달하는 상금을 선수 620명에게 나눠준다.

세계 랭킹에 따라 남녀 단식 본선에 직행할 수 있었던 선수 256명에게 2만5000파운드를 지급하고, 예선에 나갈 수 있었던 선수 224명에게는 1만 2500파운드를 준다.

또 복선이 나갈 수 있는 랭킹을 보유한 120명에게도 6250파운드의 상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 선수들도 이 혜택을 보게 됐다.

단식 본선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권순우(70위·CJ 후원)는 우리나라 돈으로 3800만원 정도에 이르는 2만5000파운드를 받게 됐고, 예선 순위가 되는 정

현(142위·제네시스후원)과 한나래(190위·인천시청) 등은 절반 정도인 1만2500파운드를 받게 됐다.

올해 임블던은 6월 영국 임블던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개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다. 임블던이 취소된 것은 2차 세계 대전인 1945년 이후 75년 만이다.

임블던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달 초 지역 특산품으로 대회 도중 많이 팔리는 딸기를 코로나19의료진들에게 선물하고, 지역 취약 계층에 하루 200인분의 음식을 제공하는 '밀 프로그램'을 6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는 등 지역 사회를 위한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연합뉴스

'당구 천재' 전남연맹 김행직 대한체육회 체육상 장려상

'당구 천재' 김행직(전남연맹·국내 랭킹 3위·사진)과 이장희 전 당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받았다.

대한당구연맹은 "김행직과 이장희 전 당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최근 서울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제 66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각각 경기 부분과 지도 부분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한 해 한국 체육계에 큰 공을 세운 체육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김행직은 지난해 세계 3쿠션 월드컵에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를 차지하며 화려한 한 해를 보냈다.

특히 2019 베젤 세계 3쿠션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개인 통산 3번째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김행직은 "지난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서 상을 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금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해 더 나은 기량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2019 세계 팀3쿠션 선수권대회 대표팀 감독을 맡아 공동 3위를 이끌었다. 여기에 2019 세계 주니어 3쿠션 선수권대회에서도 대표팀을 이끌고 우승, 준우승, 공동 3위를 휩쓸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연합뉴스

박지은은 9단 프로 통산 600승...국내 여자바둑기사 두번째

박지은(사진) 9단이 프로통산 600승을 달성했다. 조혜연 9단에 이어 국내 여자기사로는 두 번째다.

12일 한국기원에 따르면 박 9단은 지난 9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에서 김수진 5단에게 268수 만에 백 불계승, 600번째 승리를 챙겼다.

박 9단은 600승 2무 470패로 56.07%의 승률을 기록했다.

박 9단은 1997년 입단한 뒤 이듬해 74회 승단대회에서 김철중 2단(이하 당시)에게 프로 첫 승을 올렸다. 2001년 7월 100승(양재호 9단), 2005년 5월 200승(하호정 2단), 2007년 12월 300승(윤영민 2단), 2011년 3월 400승(현미진 4단)을 거뒀다.

2014년 4월에는 여자기사 최초로 500승(중국 자강루 초단)을 달성했다.

박 9단은 2000년 1기 여류명인전에서 첫 우승했다. 여류국수전, 정관장배, 대리배, 공통산병성배 등 통산 일곱 차례 정상을 밟았다. 2004년부터 2011년 열린 5차례 세계여자바둑대회 개인전에서 전승하며 여자바둑의 간판스타로 떠올랐다.

박 9단은 2008년 1회 원양부동산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에서 우승해 국내 여자기사 최초로 입신



(入神9단의 별칭)에 올랐다. 2017년 4월에는 국내 여자기사 최초로 1000 대국을 소화했다. 박 9단은 오는 16일 2020 한국여자바둑리그 8라운드 1경기를 통해 601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기원 소속 기사 중 최다승 기록은 조훈현 9단이 보유한 1949승(일본 기록 118승 5무 41패 포함)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살아있다
2관	#살아있다, 원 데이
3관	발행: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4관	발행: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담뱃터
5관	위대한 쇼맨, 그레틀과 한젤
6관	담뱃터
9관	#살아있다, 다크 나이트 라이즈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7관	씨네카를 #살아있다, 결백
8관	씨네카를 소리꾼, 침입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p>박주원의 방랑예찬 2020. 7. 22(수)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p>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예회관 대극장</p>	<p>창작발레 오월바람 2020. 7. 29(수) ~ 30(목)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p>동화음악회 - 책으로 꿈을 꾸는 돼지 2020. 8. 25(화) 11:00, 14: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p>
--	---	--	--